

雁鴨池名稱에 關하여

韓炳三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雁鴨池란 池名은 朝鮮王朝 成宗때 편찬된 東國輿地勝覽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雁鴨池가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이름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또한 梅月堂 金時習의 文集에는 「安夏池」라고 적혀있어서 音은 雁鴨池와 비슷하나 字意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장 오래된 記錄인 三國史記에는 「文武王 一四年(六四七) 二月에 宮內에 못을 파고 山을 모으고 花草를 심고 진귀한 禽獸을 길렀다」는 기사가 보여서 이것을 雁鴨池造成에 관한 것으로 믿어 왔다. 실제로 發掘出土品중에 「調露二年(六八〇年)」이란 銘文이 陰刻된 文樣薄片이 발견되어, 三國史記 記事가 雁鴨池 造成에 관한 것이 틀림없을 것 같다. 그런데 「宮內에 못을 파다」고 했을뿐, 宮이나 못의 이름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筆者는 최근 雁鴨池에서 출토된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宮」과 「못」의 이름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흥미있는 자료에 접하게 되어, 이를 관계 史料들과 비교검토한 결과 매우 중요한 史實을 알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雁鴨池의 原名은 「月池」이고 「月池」는 東宮안에 있는 연못이며, 東宮은 「月池宮」으로 불렸다.

三國史記 職官(中)에 內省(宮內府)에 소속된 관청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말미에 東宮官(太子宮)의 관청이 따로 기록되어 있다. 도합 八개의 관청이 東宮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중 특히 「洗宅」·「月池典」·「僧房典」·「月池嶽典」·「龍王典」등은 문체해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雁鴨池 발굴유물중 銘文이 적혀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 유물중에 「洗宅」이란 墨書가 적힌 木簡이 몇개, 그리고 「龍王辛審」 또는 「辛審龍王」이라 陰刻된 土器片이 몇점 포함되어 있다. 「洗宅」은 지금의 秘書室과 같은 기구로서 內省과 東宮에 따로 설치되어 있다. 과거에 東宮에 있는 「洗宅」은 중복된 기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결코 중복이 아니라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李基東교수가 이미 밝힌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內省은 本宮이 있던 지금의 半月城에 있었으므로, 雁鴨池에서 출토된 墨書銘 「洗宅」 木簡은 東宮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龍王辛審」 또는 「辛審龍王」이란 鉛文은 토기 바닥에 燒成전에 陰刻한 것들이다. 「龍王」과 「辛審」이 전후 위치를 달리하면서 쓰여진 점으로 미루어 양자는 각각 별도의 뜻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龍王은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辛審이란 무엇인가 三國遺事 「處容歌·望海寺」條에 보면 「新羅四九代 憲康王이 鮑石亭에 幸하였을 때 南山神이 御前に 나타나서 춤을 추었는데 左右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王에게만 홀로 보였다. 이때 神의 이름을 「祥審」이라 하였으므로 이 춤을 御前祥審 또는 御前山神이라 한다」는 記錄이 있다. 辛審이란 祥審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龍王과 대등하게 표현되었다는 것은 山神을 뜻함이 아니겠는가. 또한 山과 辛의 音 또한 유사한 바가

있다. 결국 「龍王辛審」이 적힌 土器들은 東宮의 「龍王典」에서 祭器로 사용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雁鴨池에서 出土한 유물중에 三尊板佛을 비롯한 佛像들도 二〇여점에 달한다. 東宮 관청중에 「僧房典」이 있는 것과 더불어 생각할 때 宮內에 승려들이 상주하여 불교의식이 빈번히 행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궁내에서는 불교의식과 용왕상신에 대한 제사가 병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銘文이 적힌 祭器의 木偶・鉛으로 만든 가위・거울 등 民俗信仰과 관계깊은 유물이 많이 아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다음 문제해결에 가장 중요한 東宮 소속 관청은 「月池典」과 「月池嶽典」이라고 생각된다. 「月池典」에는 闕로 되어있고 관리의 배정이 없다. 아마도 「月池典」이 후에 「月池嶽典」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嶽典이란 지금의 造景담당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月池의 造景을 관장한 곳이 「月池嶽典」이다. 여기에 소속된 관리는 大舍二人, 水主一人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水主이다. 李丙燾박사가 譯註한 三國史記에 보면 水主는 堤池를 관리하는 관리이다. 그러나 東宮에는 月池란 곳이 있어서 造景도 하고 물도 관리하는 관청이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것을 결론 지어보면 雁鴨池 발굴출토 유물중에 東宮에 소속된 관청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 있으며, 또한 東宮에는 月池라는 곳이 있어서 이를 관리하는 관청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 된다. 앞의 三國史記 文武王 一四年條에 나오는 「宮內에 못을 팠다」는 기록으로 추정해보면, 현재 新羅의 宮城址로 알려져 있는 半月城이나 北쪽의 殿廊址 등에는 관리까지 배치해서 造景을 했을만한 못자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기사는 分明히 新羅 최대의 人工池인 雁鴨池 조성에 관한 것이며 여기서 宮이란 東宮을 말함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雁鴨池의 당초 이름은 「月池」에 틀림없을 것이다.

(國立慶州博物館長)

## 雁鴨池出土 木造建築部材에 對한 考察

金 東 賢

雁鴨池 및 臨海殿址 一帶는 一、三〇〇餘年前 만들어진 統一新羅時代의 別宮과 苑池가 復合된 遺蹟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雁鴨池는 新羅 第三〇代 文武王 一四年(六七四年)에 造成되었다고 傳해지고 있으며 五年後인 文武王 一九年(六七九年)에는 東宮을 지었다는 記錄이 보이고 있어 發掘調査가 이루어지기 以前부터 雁鴨池 및 그 周邊建物址에 對한 歷史的인 背景은 어느정도 周知하고 있었다. 그러나 發掘以前의 연못이나 기타 遺構內容만으로는 雁鴨池에 對한 作庭技法은 勿論 周圍에 있던 殿閣榭亭에 對한 配置가 어떠한지는 지 전혀 想像할 수 없었다.

그러나 一九七五年 三月부터 一九七六年 一二月까지의 二年餘에 걸친 全面的인 發掘調査를 통해 豫想하지 않았던 統一新羅時代의 苑池細部와 建物配置內容이 밝혀져 當時의 造園術과 建物規模等에 對해 尙상히 把握할 수 있었다.

특히 雁鴨池에서 出土된 많은 貴重遺物들은 露出遺構 못지 않게 遺構內容을 把握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當時의 生活斷面을 理解할 수 있는 크나큰 契機를 마련케 하였다. 이 遺蹟에서 出土된 遺物은 量과 質에서 지금까지 어느 遺蹟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이었으며 最多出의 瓦磚類를 비롯하여 金屬製品, 木竹製品, 土石製品들이 多數出土되었다.

여기에 紹介코자 하는 遺物은 많은 出土遺物中 木造建築 部材片에 局限하였다. 이들 部材들은 建物에 있어 기둥上部에 사용되었던 柱頭 및 棋包部材, 그리고 屋蓋에 사용되었던 椽木, 浮椽, 平交台, 椽舍들이며 欄干材等이다.

이들 部材는 크히 斷片的인 資料材에 不過하나 當時의 木造建築의 細部를 部分的이나 말할 수 있다는 데에 큰 意義가 있을 것이며 現存하는